사랑하는 사람(혹은 다른 객체)을 잃은 적이 있는가? 힘들겠지만 그 아픔을 적어볼 수 있는가?

정확히 2017년 12월 18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자를 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라기엔 딱 좋은 날씨였고, 회색 빛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제가 평소 즐겨 듣던 가수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땐 그냥 안 믿겼습니다. “너 뻥치는 거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 실검들…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가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울었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눈물을 말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그의 부고 소식과 관련한 뉴스가 방영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전 적당히 맞장구 쳐주었습니다. 사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독서실을 갔습니다. 그의 솔로곡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날 이후 2년정도는 수시로 계속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울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울이 뭐길래.. 나도 우울한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의 흔적을 좇아가며 저 혼자 많이도 울고, 웃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가 남긴 좋은 곡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렇게 좋은 책도 썼구나, 좋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구나, 항상 우울했던 건 아니구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밝고 웃는 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사실 그의 흔적을 좇는 동안 저는 많이 우울해져 있었습니다. 시기도 시기이고, 슬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겐 힘듦이었습니다. 글을 적는 지금도 그의 음악을 들으며 슬픕니다. 더러는 덜컥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어떻게든 그에게 도움을 주자. 마음의 병을 앓고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 더 이상 아파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엔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인해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직도 진로에 대해 방황하고 있긴 한데 it학부에서 전공까지 선택한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심리 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인 홈페이지 혹은 앱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혹은 양질의 상담을 받지 못해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꼭 오늘 안에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의 노래는 ‘따뜻한 겨울 – 종현’ 입니다. 한 번쯤 들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종현님,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매일매일 듣고요. 전 아직도 생생해요. 그냥 이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음악 하며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그것마저 불편하다면 그냥 마음 속으로만 그리워하고 있을게요. 생일 축하해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이 되길 바라요. 누구보다 축하하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울 쫑 사랑해♥